

대중문화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와 TV 드라마 내러티브의 신화 구조

윤선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첨단 과학과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21세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신화와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대중 문화와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 드라마에 성경을 전면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우리 사회 내면의 문제와 연결하여 보고자 하였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카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성경과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이의 함의를 보다 심층적인 사회 심리학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레비스트로스 문화 인류학을 종교 문제에 대입한 리치의 이론을 중심으로 드라마의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의 보다 심층적 의미 분석을 위해 칼 융의 정신분석학을 도입하였다. 융의 방대한 이론 가운데 특히 집단 무의식 개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근거와 우리 사회에 내재한 집단 무의식의 층위를 진단하기 위해 TV 드라마를 사례로 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key words: 종교문화, 정신분석학, 문화연구, TV 드라마분석

* syoon@hanyang.ac.kr

1. 서론

21세기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아이러니 하게도 대중문화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화적 요소가 많이 삼입되고 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와 같이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에 신화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은 물론, 최근 헐리웃 블록버스터가 보이는 영웅주의도 간접적으로 신화적 내러티브를 반영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컴퓨터 게임이나 3-D 애니메이션도 신화가 내러티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판타지 신화를 넘어서 절대성으로 대변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도 기독교 포교를 위해, 성경 드라마나 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왔고, 이런 장르의 수용자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독교 포교의 틀을 넘어서 성경의 소재가 대중문화에 대단위로 편입되는 현상은 최근의 일이다. 이것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진 <다빈치 코드>이며 그것의 속편으로 홍보되어 최근 개봉된 <천사와 악마>를 들 수 있다. 두 영화가 모두 전 세계 박스오피스 5위안에 들었으며, 책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를 소재로 세속적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지만, 서구 기독교의 뿌리 깊은 문화적 토대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사회에는 문화적 충격을, 비서구 사회에는 또 다른 의미의 신선함을 전해주었다(문화선교연구원 2005).

우리나라 경우도 최근 성경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장르인 TV 드라마에 성경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대중문화에 도입된 성경적 소재가 일반 문화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종교 방송과는 맥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이는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특별 종교 행사를 기념하여 제작된 방송도 아니고, 신부나 수녀 같은 특정 캐릭터를 빌려와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블록버스터 급 드라마에서 성경의 내러티브 구조를 정면으로 들여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카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배우의 연기, 극의 전개나 주제의 모호함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블록버스터 드라마에 맞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중문화에 도입되고 있는 신화적 내러티브, 특히 성경의 도입과 해석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토대로 현재 대중문화의 내러티브와 성경적 내러티브의 구조를 비교하여 문화적 원형과 변형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성경적 소재가 오늘날 대중문화에 도입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칼 융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칼 융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확장하여 집단무의식, 문화 현상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신학자이기도 한 칼 융은 성경의 내용을 정신분석학으로 설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교조적인 기독교 성경 해석을 넘어 새로운 해독으로 이롭이 높다. 본 논문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신화 이론과 칼 융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현재 도입되는 성경적 소재의 대중문화 영입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캠브리지대 신학과 에드몬드 리치 교수는 “성경의 진리는 신화적 진리다”라는 말로 성경의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한다. 전통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다소 도발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문적 대상으로 신학에 접근하는데 많은 설명력을 내포한다. 특히 서구 문명 전반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기독교가 저변에 깔려있고 서구 학문의 전 영역도 예외 없이 기독교적 문명이 근저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학의 학문적 성과를 보다 널리 일반 학문 영역에 확장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Gusdorf 1983). 이는 서구 학문의 기반이 종교를 언급하지 않거나 종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이론에도 저변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어떤 형태로든 기인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서구의 문명에 영향을 받은 비서구 국가의 학문 영역이나 대중문화도 이런 맥락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박진규 2009; 윤선희 2007). 성경적 모티브를 보다 학문적인 영역으로 접근하여 문화의 변동과 대중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성경이 학문적인 대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이며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인류학의 발전은 기독교의 학문적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신화 분석은 가장 큰 성과로 나타났다. 신학의 대부가 된 로버슨 스미스는 이방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신학 연구를 시작하여 19세기 당시 교단에서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였다(Beidelman 1974). 인류학적 관심에서 출발한 신학 연구의 초기 관심은 인류 탄생 신화에 얽힌 문제의 해명에 있다. 문화 인류학적 시각에서 볼 때,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현 인류를 이루었다는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친상간의 문제이다. 인류의 조상이 다인종의 현 인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와 친인척간의 혼인이 불가피해진다. 성경에 등장하는 원 인류의 순수성을 부정하든지 근친상간적 인류 번성의 원리를 부정하든지 택일해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인류학적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된다.

프레이저(1918)는 초기 신학연구에서 인류학적 문제의 획기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였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창세기의 홍수이다. 창세기에 자세하게 묘사되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를 벌하고, 순수한 인간과 종을 보존하는 기록으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신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선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날레가 장식된다. 프레이저는 인류의 죄를 짚어주는 홍수의 내러티브가 인간 창조에 내재된 근친상간의 죄를 파괴하고 새로운 인류 역사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리치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이론을 대입하여 재해석하면서, 홍수는 인류 탄생이 함축한 죄를 해결하고 원 인류의 아이러니를 해결한 이항대립의 내러티브 구

조로 설명한다. 창조와 홍수 사이의 기간은 “대개항”으로, 즉 천지창조와 대홍수 사이 시간은 비정상적 세계로 홍수를 통해 해결되는 내러티브를 배태하게 된다(Leach 1985, p. 74~75).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라는 표면적 진실을 넘어, 내러티브의 전개방식을 추적하면 신화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부터 신학의 주요 관심은 죄에 집중된다.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전개되는데, 내러티브 구조 분석은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리치는 레비스트로스의 신화분석의 틀을 원용하여 인간의 죄의 근원을 말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현재 대중문화에 도입된 성경적 소재도 다분히 죄의 본질성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되며 인간의 원죄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인류의 탄생에서 기원하는 원죄에서 비롯된다. 에덴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유혹하여 신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오늘날 삶의 고향에 빠진 인간 운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비종교적 시각에서 보면 사과를 따먹은 죄치고는 가혹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신학 내부에서 원죄에 대한 해석과 이론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비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기원을 설명하기에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카인과 아벨 형제이며,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살인은 현재까지도 최고의 범죄이며, 특히 존속살해는 천인공노할 죄악으로 인식된다. 인간의 사악한 죄에 의해 세계가 더럽혀지고 신에 의해 벌을 받아 힘겹고 죄악에 물든 세계가 되는 죄의 기원을 카인에게서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중문화에서 성경을 소재로 한 내용이 양산되는 것도 신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죄와 악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가 전쟁과 환경문제,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현실 문제에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게 되었으며 그 중 하나로 성경에 대한 탐구, 그 중에서도 근원적 악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덴동산의 추방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현재의 피폐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근원적 원인을 설명하는 의도로 대중문화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죄와 처벌에 대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후 정착한 지역에서 카인은 농작을 아벨은 목축을 하는 분업의 양상을 보인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카인은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제사로 드렸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아 화가 난 카인이 질투심에서 아벨을 죽이게 된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특히 문학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조신권 2008). 메타포와 상징, 의인법을 사용하여 문학적인 표현으로 점철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내러티브 구조 자체가 심층적이고 단순한 죄와 벌의 단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리치는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이론을 이용하여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재분석하는데,

| + | +/- | - |
|-----------------|-----------------|------------------|
| 이세계 | 어중간 | 저세계 |
| 농경민 문명 카인 | 목축민 광야 아벨 | 하나님 천국 하나님 |

(그림 1) 카인과 아벨의 내러티브 구조¹⁾

권선징악의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 카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조화한다(Leach 1985, pp. 335~345). 즉 악을 대변하는 카인은 인간의 대표자이며 선을 대변하는 아벨은 사실상 인간을 위한 제물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인간과 신의 세계의 이항대립에서 아벨은 매개항이 되며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고 화해하는데 필요한 제물의 운명을 나타낸다.

목자인 아벨이 사는 세상은 광야이며 공간적인 영역 자체가 인간과 신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노말리의 영역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이 가장 비근하게 적용된 서부 영화 분석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Fiske 1990; Wright 1975; Leach 1976, 1969).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창세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이며, 노마드는 이방으로 취급되고 백안시되었다. 광야에서 생활하며 양을 치는 아벨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중받는 계층은 아니었으며, 농경 생활을 하는 카인이 이스라엘의 일반적 사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보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Schniedewind 2004, pp. 87~110). 그림에도 불구하고 카인이 애써 농사를 지어 바친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이론으로 파악할 때는 인간을 대표하는 카인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피의 제물로서 아벨의 상징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형제를 죽인 카인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징표를 준다는 것이다. 형제를 살인하고 징벌을 두려워하는 카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 카인을 해치면 7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징표를 주어 아무도 그에게 와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관습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카인은 신의 절대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카인의 살인은 사실상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로 재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16절에서 카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살게 되는데 최초의 도시, 집단으로서의 인류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카인이 건설한 도시는 에덴의 동쪽으로 기록되어 신이 창조한 에덴의 낙원과 연관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후 17절에는 카인의 후계 구도가 길게 묘사되고 있는데, 부족 국가로서 인류 생활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이다.

1) Leach 1985 p. 51에서 인용.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특징이 반영되어 이같은 내러티브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면서 출애굽의 40년을 예수가 40일을 물 한모금 풀 한포기 없이 생존한 땅이며 목축민인 아벨이 거주하는 땅이기도 하다.

이렇듯 구조주의 신학이나 종교심리학에서 볼 때, 카인과 아벨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이 아니라, 인간 무의식의 저편에 접근하는 성경의 신화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리치가 창세기를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내러티브 구조로 설명하면서 아벨을 예수의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을 신화로 접근한 또 다른 학자 말리노프스키 (1948)는 카인과 예수의 상징적 유사성을 등치시키고 있다. 카인이 인류 죄악의 씨앗으로 각인된 상황에서 이를 성자 예수와 등치시키는 것이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신화구조로 보면 선악을 넘는 심층적 상징을 파악할 수 있다. 리치도 카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해석이 가장 어려운 인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갖는 악에 대한 교조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고프만 (1963)은 카인의 이야기에 나온 스티그마 즉 징표에 주목하는데, 카인의 스티그마는 예수의 스티그마와 같은 신의 귀속성, 초월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p. 5). 즉 카인이 악의 씨앗으로 탄생하는 아벨에 대한 살해는 제물의 원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친제 살인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표는 육체적 필멸성과 정신적 불멸성의 모순을 해결한 상징으로 카인의 징표는 신의 보호, 절대성의 귀의를 뜻한다는 것이 고프만의 해석이다. 이로서 인간은 제물을 드리므로 육체적 필멸성을 불태우고, 정신적으로 불멸한 영혼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Leach 1985, pp. 338~340).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간 내면의 죄와 동물성이 같이 사멸되고, 순결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성흔도 인간의 죄, 즉 육체적 필멸성을 넘고 정신적 불멸성을 획득하기 위한 제물의 의식이라는 점에서 예수와 카인은 공통의 상징적 징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p. 339).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이론이 성경의 해석과 성경이 응용된 대중문화의 다양한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 구조주의적 본질성에 경도된 동어반복적 이항대립의 틀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앞서 예시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인간과 신의 이항대립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지만, 개별 내러티브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 더 나아가 이야기의 형식을 넘는 내용과 의미의 측면에서는 분명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의미의 차원에서 접근한 이론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가장 큰 공로를 지닌 이론가로 칼 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칼 융은 정신분석학자로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출발하였지만, 핵가족의 좁은 틀로 인간의 심원적 무의식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껴 인간 무의식을 종교적 영혼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칼 융은 일생동안 워낙 방대한 저서를 저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그의 가장 탁월한 업적은 역시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 정신분석학으로 기독교를 설명한 부분이다.

칼 융이 방대한 영역과 저작 활동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의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원형(Archetype)의 문제이다. 융은 원형을 다른 말로 근원적 이미지, 무의식의 내적 질서 등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원형이란 인간 내면의 근원성을 전제한 개념이다(Jung 1948, pp. 290~210). 융에게 있어 원형은 이미지가 아니며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인간 내면의 구조적 경향이다(p. 292). 융의 원형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콤플렉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말하는데 융의 원형은 프로이드식의 콤플렉스와 차이가 있다. 이것이 융이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되는 접점이기도 하다.²⁾

정신분석학이 근간으로 한 무의식은 지각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후 대부분 학자들은 정신분석학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고, 무의식을 인지할 수 있는 틀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 왔다. 꿈과 언어, 병리적 증상과 예술적 상징 등 현실적 인지 가능성의 틀로 무의식을 설명 하는데 한계를 갖고 이론을 전개해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융은 소위 신비주의로 취급되는 인간 영혼의 영역을 과감히 도입하여 무의식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며 이의 기본 개념 틀이 원형이다.

융은 원형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Rolins p. 115). 이는 동물의 본능과 같은 것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몸이 먼저 아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삶을 지속시키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원형이라고 보았다(Jung 1948, p. 75~79). 다소 관념론적이고 신비주의로 들리는 원형의 개념은 실제 융이 임상 사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융 기본 저작집 8권은 그가 임상한 정신병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쓰여 졌는데 유명한 미스 밀러의 사례이다. 히스테리 신경증에 시달리는 밀러의 꿈과 환영에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의 상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영감을 받아 융은 인간 내면에 축적된 인류의 보편적 원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를 유추하여 신화와 종교의 이야기를 해석해내고 있다.

융은 원형이 인격에 적용된 것을 프시케(Psyche)라고 명명하였다. 흔히 인격이나 심리로 묘사되는 의식적 차원의 프시케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저변에 프시케의 심층 구조 즉 무의식의 차원이 내재한다. 융에게 있어 무의식은 다시 두 차원으로 욕망과 억압으로 점철된 개인적인 무의식(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무의식과 같은 차원)과 이를 넘는 집단적 보편적 무의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의식과 개인의 피상적 차원을 넘는 보편적 차원의 프시케가 인격의 원형이 되며 융은 이를 탐구하기 위해 신화와 문학, 예술을 넘어 종교적 영혼의 문제까지 탐구하게 된다.

집단 무의식을 많은 예증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융 전집 8권은 “리비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영웅과 데몬(악마)”라는 단언으로 시작한다. 이는 융이 이미 프로이드와 결별한 후기 저작에 속하며, 여기서 리비도는 프로이드의 성 욕망을 넘는 인간의 무의식에 근거한 정신적 에너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전작 7권 <상징과 리비도>편에서 밝히고 있다. 8권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밀러의 꿈과 환영에 나타난 이미지를 때로는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적 욕망으로 때로는 신화와 문학, 신학, 예술의 풍부한 예를 들어 집단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밀러는 정신분열증

2) 융은 프로이드의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정신분석학에 충실한 입장이었으며, 정신분석학회장으로 프로이드에 의해 지목되기도 하였다. 융이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되는 원인은 무의식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한다. 융은 근친상간을 전제한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미심쩍은 것”으로 보고 실제 그의 임상 케이스를 통해 집단 무의식, 즉 신화와 영혼의 문제를 무의식 영역에 확장하여 설명하게 되었다. 프로이드는 융의 시각을 “신비주의”로 경계하여 파문하기에 이르고, 정신분석학자로서 융은 그의 이론을 분석심리학으로 명명하면서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된다 (Casement 2001, pp. 75~80)

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 경계현상에서 많은 이미지와 환영을 보게 되는데, 스프링크스의 환상과 후에 갑자기 나타난 남미 아즈텍의 남자로 “치완토펠”라고 자신의 이름을 전한 인물이 주역이 된 내러티브이다. 일반인에게는 미친 사람의 “개꿈”으로 치부해버릴 하루 동안의 꿈을 통해 인류 시초의 신화적 내러티브에서 종말의 묵시록까지 방대한 사례를 동원하여 융은 인간 정신의 원형을 탐구하고 있다.

융은 밀러의 꿈에 나타난 스프링크스의 환영을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기도와 등치시키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지 못한 채 스프링크스 환영을 보는 밀러의 꿈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무의식의 심연에 침잠하는 리비도적 욕망으로 리비도 내면의 프시케에 조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융의 설명이다 (Jung 1985, pp. 12~20). 융은 오이디푸스의 신화에서 문지기 정도의 조역에 그치는 스프링크스가 사실은 핵심적 인물이며 오이디푸스가 욕망하는 이상적 어머니 (왕비)와는 또 다른 모성 상으로 무서운 어머니, 악마적 모성 상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p. 25~27). 이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어머니의 원형인 이시스가 자칼 즉 독수리의 영상과 동일화되고³⁾ 페르시아, 티베트, 배화교의 풍습에 이르기까지 고대 신화와 풍습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독수리와 일백상 통한다 (pp. 120~121).

융은 무의식적 그리움의 대상은 언제나 어머니이며 이는 이중의 어머니 상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다(p. 234). 잔인하고 탐욕적인 악마적 모성은 뱀과 용 같은 공포서린 괴물의 환영으로 나타나는데 근친상간적 욕구에 위협을 준다. 여기서 근친상간의 욕구는 프로이드식의 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서 설명한대로 생명과 부활의 욕망으로 신화에 나타난다. 융은 괴테의 시에서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근친상간의 금지와 욕망, 이를 반영한 영웅 신화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종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의 〈계시록〉도 어머니로 내러티브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다고 융은 지적한다(p. 98).

전집 8권에서 융이 주목한 원형의 또 다른 이미지는 밀러의 꿈에 나타난 치완토펠이다. 이는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아니무스의 이미지로 젊은 여성인 밀러가 마음에 품은 이상형으로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의미한다.⁴⁾ 밀러의 꿈에서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하고 나타나 인디언들의 공격을 물리친 고독한 방랑자 치완토펠은 영혼의 여성을 구애하는 영웅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융은 신화와 성경, 여러 경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영웅의 이미지가 치완토펠의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논증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세레 요한의 이미지에서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앗시리아, 그리스 영웅의 이미지에도 치완토펠의 이미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밀러의 환영과 경전을 병치시켜 설명하고 있다(pp. 34~68).

3) 이시스는 자칼머리를 한 아니무스의 도움으로 조각난 오시리스의 시체를 모아 부활하게 한다. 독일어의 어머니를 뜻하는 “무터”는 독수리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페르시아, 티베트, 배화교에서 시체를 내다 버려 독수리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부활의 이미지로서 모성과 독수리를 등치하는 이미지에서 기원한다.

4) 융은 인간 내면에 원형적으로 존재하는 두 측면을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보고 각기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정의 하였다.

아니무스 상으로서의 영웅은 주체의 대리인으로서 “주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p. 239) 치완토펬은 아니무스 상으로 붓다와 그리스도, 호루스⁵⁾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 악마 같은 사나이로 밀리의 꿈속에 나타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용은 치완토펬이 히스테리성의 유아적 영웅으로 결국 어머니에 대한 욕망, 즉 완벽한 이상의 환영을 형상화한 것이라 보고 있다⁶⁾. 치완토펬은 주인공의 이 같은 퇴행적 심리를 표현하지만, 주인공의 환영과 증상이 개인 무의식의 차원을 넘어 보다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 공유된 집단 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성경과 신화와 예술의 텍스트를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설명한 것이 용의 작업이다.

칼 융이 환자의 꿈 이야기를 계기로 성경과 신화의 보편적 구조를 탐구하면서 신학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선과 신격의 상징인 예수도 신화 구조에서 보면 당시 유대와 이집트, 소아시아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신화를 바탕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고 용은 분석하고 있다. 예수는 이집트의 대표 신화인 호루스의 이야기, 즉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탄생신화와 보편적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다윗, 예수에 이르기 까지 호루스의 신화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의 탄생신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의 근간은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와 근친상간적 욕망을 이야기 구조에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개인을 넘는 집단적 무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용의 주장이다. 이때 용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은 한 사회 단위의 집단이 공유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사회 공간의 구속성을 넘어 보편적이고 축적적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의 다층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같이 용의 집단 무의식은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보다 심층적 의미 토대를 구조화하고 있는데, 그가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인간 내면의 욕망 특히 근친상간의 욕망이다. 이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분석과 일맥상통하지만, 차이는 개인과 핵가족의 차원이 아닌, 초사회적 초역사적인 욕망의 증후군으로 근친상간을 재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Jung 1948, pp. 129~160). 성경과 신화를 통해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는 용은 한편 예술에 표현된 집단 무의식의 증후군을 분석하고 있는데, 바그너의 오페라가 자주 인용된다. 바그너의 초기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용이 인간 심리의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작품이며, 그의 전집 8권에서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면서는 고대 신화의 모티브가 근대 예술에 나타난 것으로 바그너 오페라의 결정판으로 인정받는 <니벨룽겐 반지>를 예로 들고 있다 (Johnson 1983; Jung 1985, 1948). 오페라는 바그너 악극의 완성판이라는 명성과 함께 긴 공연시간과 난해한 이야기 구조로도 유명한데 용이 주목한 것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인 영웅과 어머니의 이미지이다.⁷⁾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반지의 제왕>의 원작이라고도 할 수

5) 불교의 신, 기독교의 신, 이집트 신화의 신이며 모두 아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6) 용은 “치완토펬의 의도들과 또 그 뒤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어머니 이마고가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치완토펬은 배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는 이상형으로 작자 (밀리)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내밀한 생각과 욕구를 말로 드러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pp. 237~238)

있는 이 오페라는 반지를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목시록적 세계관을 보이는 <반지의 제왕>에 더해 인간의 원형적 인격과 무의식적 욕망의 다양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오페라의 중심인물인 영웅 지그프리트는 근친상간으로 잉태된 죄의 산물이며, 비극적 운명을 일으키는 갈등의 산물이기도 하다. 용은 인간 원형의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에 강박적으로 존재하는 분열적 인격으로서의 여성성 또, 밀러의 꿈에 나타난 치완토펠의 아니무스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자동동체의 본질성으로 보고 이를 어머니에 대한 원형적 이마고라고 해석하고 있다.⁸⁾ 칼 용에 의하면 집단무의식을 설명하는데 어머니의 이마고가 인간과 신화의 원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집단 무의식으로 인간의 행위와 운명을 결정하는 어머니의 이마고,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근친상간적 욕망을 용은 사회 역사적으로 억압된 여성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칼 용은 다양한 신화를 동원하여 성경과 유대교에 나타난 여성 차별과 폄하를 신화에 원형적으로 존재했던 신의 여성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았다. 신화의 시작은 여성의 신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성경과 고대 신화가 텍스트가 될 즈음에도 그 전통은 어느 정도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에서도 기독교 초기 3세기까지도 신의 양성성이 공유되었다는 주장이다. 1930년대 발굴된 3세기 유대교 교회에 여신의 벽화가 존재했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Gutman 1973). 리치는 “모세에게 왜 누이가 있었는가?”라는 연구 주제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주인공에는 항상 누이가 있었으며, 이는 당대 신화에 존재하는 여신의 존재가 성경에 잠재해 있다는 논의로 용의 이론에 인류학적 공감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Leach 1985, pp. 115~214). 그는 또 이 문제를 역전시켜 “예수에게는 왜 누이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여성이 억압적이고 퇴폐적으로 묘사되는 신약의 이야기도 여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칼 용은 많은 예증과 분석으로 인류학적으로 존재했던 여신의 존재가 성경과 신화 속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원형적 모습, 무의식적 욕망을 층위에 깔고 있는 것으로 성경과 신화의 이야기의 표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이 근친상간의 욕망으로, 최악의 근원으로 해석되어 영웅의 탄생과 운명의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⁹⁾

7) 니벨룽겐 반지는 영웅 지그프리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4개 이야기,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로 구성되어 있다. 라인의 황금은 신들의 우두머리인 보탄 파프너, 로게등 신들간의 경쟁과 거래, 반지를 둘러싼 욕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두 번째 발퀴레는 보탄의 아들 지그프리트와 딸 지그린데가 운명적 만남을 통해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웅장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셋째 지그프리트는 이야기의 중심인 영웅 지그프리트의 일대기이며, 그는 지그문트와 지그린데의 아들로 출생의 비밀 속에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로 용으로 변한 파프너를 죽이고 피를 맛봐 초월적 능력을 갖게 된다. 넷째 신들의 황혼은 보탄의 딸 발퀴레인 브륄힐데를 영웅 지그프리트가 불의 벽을 뛰어 넘어 구해내며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모략과 오해로 배신하게 되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보이고 있다.

8) 지그프리트에게는 두 개의 어머니 즉 생물학적 어머니로서의 지그린데와 상징적 어머니로서의 브륄힐데가 있다고 보고 있다 (Jung 1985, p. 314). 그러나 결국 브륄힐데도 보탄의 딸 발퀴레 중 하나로 보탄의 손자인 지그프리트도 근친상간의 관계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p. 322).

음은 죽음과 악몽을 상징하는 어간 mar가 어머니를 뜻하는 언어 mutter, mere, mother, merr¹⁰⁾와 공통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pp. 143~145). 성경과 신화, 언어에 나타난 어머니 이마고는 사실상 성경이전에 존재했던 여신의 존재를 악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는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구약성경에는 여성적 성격이 곳곳에 발견되는데, 예루살렘과 바벨등 도시들은 여성을 의미하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자는 여성을 대표격으로 예언을 외치고 있다(pp. 70~72). 이후 여성성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비천함과 악의 존재로 치환되는데,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과 갈라디아서는 여성성을 악의 상징과 정복의 대상으로 묘사한다(pp. 82~88). 음은 이를 무의식에 잠재한 어머니의 이마고의 투사로 해석하면서, 성경의 내러티브뿐 아니라 도시, 건축, 조형물, 언어에 투영된 어머니 이마고의 상징과 그의 사회적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프로이드의 “일차원적 근치상간 성향의 억압”의 인과론적 설명을 반증하는 것으로 집단 무의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p. 99).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성격이 가장 억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대 대중문화에 나타난 팜프파탈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 이마고의 원형이며, 여성 성격에 대한 사회 역사적 저항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3. 드라마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 분석

최근 한국의 드라마 중 종교적 모티브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카인과 아벨>과 <에덴의 동쪽>을 들 수 있다. 성경의 소재를 직접적으로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두 드라마는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액션 멜로 장르의 일반 대중 드라마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를 중심으로 멜로와 액션을 버무린 전형적인 한국드라마의 포맷을 따르며 애정의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 가족애와 갈등을 드라마 전개의 기축으로 하고 있어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일견 식상하다고 할 이들 드라마가 보이는 특이한 면은 성경의 소재를 제목으로 전면내 내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극히 세속적인 이야기 전개 속에 성경의 모티브를 내러티브의 구조로 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 드라마가 보이는 성경적 모티브는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선한 소재를 찾는 제작자의 노력과 성경적 이야기에 공감하는 한국 기독교 수용자의 기반이 상호 상승 작용하고 있지만, 하필 이 시점에서 성경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 대거 유입되는 이

9) 유대전설에는 최초 인류 아담에게는 이브 이전에 릴리트라는 여성이 있어 주도권 다툼을 하였는데, 그가 아기를 잡아먹는 흡혈요괴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변형된다 (Jung 1985, p. 139). 이는 민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 어머니의 모티브가 되며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 등에 그대로 나온다.

10) 각기 독어, 불어, 영어, 북유럽어에서 어머니를 뜻한다. 영어의 악몽 nightmare는 어머니와 같은 어간인 mar를 공유하고 있다.

유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현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의 담론으로 확산되면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절대성의 텍스트로 인식되는 성경적 소재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위기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성경적 모티브는 악의 절대성을 규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장르를 망라하고 대중문화에 나타난 내러티브에는 어떤 형태로든 악의 요소가 등장하여 갈등을 일으켜 이야기 전개에 원동력이 되어 왔다.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대중문화인 드라마에 성경의 소재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적 메시지 전파나 권선징악의 전통적인 동기 보다는 악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중문화에 항시 등장했던 전형적인 악의 이미지를 넘는 새로운 악의 이미지를 절대성의 이야기, 성경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 차원으로 볼 때 인위적인 기획이나 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보다 무의식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현실 문제에 대한 성경적 모티브의 설명방식이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수용자의 공유된 문제의식이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접점에서 만나 공감을 나누었다고 해도,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집단 무의식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선호되고 유행되는 장르와 특정 표현 양식은 미학적이거나 산업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의 감성이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칼 융이 설명한 집단 무의식의 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성경의 모티브를 차입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카인과 아벨>도 산업적, 미학적으로 변질한 기획으로 대중 드라마의 일반적 장르 범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류 스타를 앞세운 이들 블록버스터 드라마에서 특이한 점은 절대악의 등장이다. 기존 액션 드라마에서 항시 등장해 왔던 삼류 건달이나 악한과 달리 이들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우성의 악이며 타인이 아닌 가족 관계로 얽혀 기존의 선악의 개념과 궤를 달리 하고 있다.

1)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

<에덴의 동쪽>에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신태환(조민기 분)은 선의 상징적 인물인 이기철(이동원 분)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기철의 가족들마저 악에 물들이고 고통에 빠지게 하다 결국 모두 괴멸시키는 절대적 악의 분신으로 등장한다. 제임스 딘의 유작으로도 유명한 동명 영화와 달리 이 드라마는 성경의 모티브만 빌려 올 뿐 아니라 수시로 성경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성경과 드라마 내러티브의 일치성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70년대 탄광촌을 배경으로 기업의 사장인 신태환은 자신의 이익에 반대하는 광부이며 노조의 리더인 이기철을 사고로 가장하여 막장에서 살해하게 된다. 이로서 이기철의 가족은 가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오직 신태환에 대한 복수를 일념으로 성공 가도를 치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형 이동철(송승헌 분)은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동생 이동욱(연정훈 분)은 전 가족의 희생을 댓가로 바야흐로 법관이 되지만 다시 신태환이 뿌린 악의 씨의 희생물이 된다. 신태환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 두 명의 여인을 배신하는데, 첫사랑인 고아원 동무 제니스, 불륜으로 자신의 아기를 임신케 한 유미애 간호사이다. 두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신태환의 성공 가도에 장애를 놓고 결국 마

지막 회에서 신태환도 유미에 간호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므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된다. 유미에 간호사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 버린 신태환을 증오하여 자신의 병원에서 해산한 이기철과 신태환의 아이를 바꿔버리게 된다. 이로서 출생의 비밀로 아버지를 원수로 알고 복수하게 하는 운명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고 모두가 불행한 에덴의 동쪽의 비극은 주인공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치정과 복수와 천륜 같은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이는 이야기에 더해 어색한 대사와 연기, 작가와 연기가 도중하차 하는 혼란에 대해 시청자들의 많은 항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동시간대 최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주인공이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산업적 성공을 보이기도 했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은 성경의 신화적 이야기 구조를 공유하면서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아이러니를 전개시키고 있다. 드라마 인물 중 성경의 상징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악의 상징인 신태환이다.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며 죄의 씨앗으로 상징되는 카인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며 실제 카인의 대사를 극중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신태환이 극중 선의 페르소나인 이기철을 2회에서 일찌감치 따돌리고 악의 씨앗을 뿌려 드라마 전반의 갈등을 주도하는데,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회 이기철의 장례식에서 신부는 창세기 4장을 인용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며 추도사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성경의 구절을 읊고 있다. 아벨로 상징되는 초반 이기철의 죽음으로 선은 이상과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이기철의 가족은 선을 선망하지만 신태환이 뿌린 악의 씨앗에 말려들어 복수와 갈등과 암흑의 세계에 날로 빠져 들게 된다. 에덴의 동쪽은 카인이 세운 도시와 같이 낙원에 인접하여 낙원을 꿈꾸나 악의 씨앗으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공간적 상징이 된다.

<에덴의 동쪽>에서 절대악으로 등장하는 신태환은 1회에서부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유미에 간호사를 직접 유산시키는 폐륜을 저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신부에게 성직자보다 더 우려한 성경 인용을 구사하고 있다.

신부님! 태백 하늘에 나는 새들은 창고가 없어도 먹고 살고, 태백산 꽃들은 물레질을 안 해도 꽃을 피우지만 이 땅, 탄광촌 사람들은 나 신태환이가 몽땅 먹이고 입혀서 산다는 사실을 모르쇼? 내 관심과 공활은 그뿐입니다 하물며, 신부님이 자시는 쌀밥도 내 손에서 나가는 밥 아십니까?

신태환이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의 성구를 역으로 인용하면서 악의 정당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현실 원리에 대한 역설이다. 자연의 섭리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의 믿음주의를 역으로 인용하여 야생의 원리와 달리 인간의 세계는 종교도 포함하여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만한 인간의 독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개념의 악의 페르소나를 엿볼 수 있다. 기존 대중문화에서 묘사되는 악은 현실 질서에 일탈적 행위와 인물로 묘사된 반면, 여기서 성경까지 길게 인용하면서 묘사되는 악은 자본주의의 보다 구조적이고 주류적 행위와 인물로 묘사된다.

드라마의 갈등과 아이러니의 원천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신태환은 악의 정당성으로 자본주의의 현실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악의 되물림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권력에 의거해 훈육하고 있다. 에덴의 동쪽, 아담과 이브가 해산과 노동의 고통을 죄업으로 받고 낙원에서 쫓겨난 후 잉태한 최초의 아들이 동생을 살인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류 문명을 형성하게 되는 최초의 땅이 태백의 땅으로 치환되어 표현되고 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뱀이나 사탄 같이 외부적이고 태생적인 악과 달리 내부적이고 치열한 인간의 고뇌를 담보한 악의 속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앞서 내러티브 이론으로 설명한 신학자 리치의 카인과 아벨의 내러티브 구조와 유사하게 <에덴의 동쪽>에 등장하는 절대적 악의 화신인 신태환은 아벨을 능가하는 주인공으로 현세의 혼란과 고통을 설명하는 카인의 페르소나로 등장한다. 아벨로 대변되는 이기철을 살해하고 무서운 땅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내야 하는 태백의 땅은 카인이 건설한 에녹의 성 즉 에덴의 동쪽에 비유될 수 있다. 종교의 최대 난제,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가 라는 문제에 상징적 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죄와 신의 용서와 희망의 약속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구조는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탐욕과 질투로 혈육을 죽인 카인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인치심으로 카인이 도륙되거나 처벌받는 것을 면하게 했다. 리치가 지적했듯이 아벨은 신의 어린 양, 예수와 등치시켜 볼 수 있는 선의 이상이자 돌아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약속의 상징으로만 존재한다. 악은 오히려 현실이고, 현실 논리를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도 신태환을 절대악으로 두고 현세의 고통과 모순을 이야기로 엮고 있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신태환과 대립하는 주인공 이동철은 선악의 대립항으로 보기에는 다소 약한 선의 페르소나를 보이고 있다. 이기철의 죽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이동철에게 신태환은 온갖 시련을 주고, 그 결과 동철은 소년원을 전전하고 마카오로 밀입국하여 하층민의 삶을 살면서 폭력 조직에 연루된다. 한국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자 카지노 업계의 대부를 보스로 두고 파행적 사업과 정치 뒷거래의 주역이 되어 힘을 기르며 아버지의 복수에 한걸음씩 다가가고자 한다. 동철이 선악의 대립 구도에서 선의 편에 서는 것은 신태환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이기철을 기리는 노스탈지아로 상징된다. 동철이 새장 속의 새를 보며 탄광에서 희망을 얻었던 아버지를 기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동철에게 선이란 신태환과 대립되었던 아버지의 이상으로만 존재하지 동철의 삶 자체는 혈육과 복수에 얽힌 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20회에서 성인이 된 동철은 자신의 대부인 신부에게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선의 역할을 되뇌고 있다.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신 아버지의 꿈이 말살되고 아버지의 강건한 육신이 석탄더미에 깔려서 원통하게, 숨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아버지의 핏소리에 아들로서 응답 하는거고 아버지께서 못 이루신 꿈,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살 겁니다.

성경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오는 땅의 핏소리가 동철에게는 복수의 피로 해석되고 있다. 동철은 복수로 약속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보여, 아벨과 예수의 등치로 상징되는 희생의 약속과는 차이를 보인다. 결국 피의 복수를 위해 암흑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동철은 희망이 아닌 불행과 희생으로 종말을 맞게 된다.

드라마에서 피는 죄악으로 이끄는 또 다른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기철의 또 다른 아들 이동욱은 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의 이상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악을 응징하려고 하지만, 결국 형과 같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동욱은 신태환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으로 뒤바뀐 아기라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 신태환에게 배신당한 유미에 간호사가 양갓음으로 아기를 뒤바꿔 놓아, 이동욱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평생 칼을 갈지만 결국 자신의 생부는 신태환으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전개된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이동욱은 혼란으로 신태환의 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또 하나의 불행의 주인공이 된다. 46회에서 이동욱은 평생의 원수가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피로워한다.

동욱: 아버가 아들을 죽이려 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인생들입니다 신부님! 기억하시죠 저를 사지로 몰아 고문으로 죽게 하려던 자가 누굽니까! 지옥바닥에 있는 아들에게 지옥에 내려간 맛이 어떠냐고 묻던 자가 아버라는 잡니다 !... 그렇게 잔인하고 사랑 없는 자가 아버라는데 핏줄이라는데 살고 싶을 사람이 누굽니까 ! 제 몸속의 피를 모두 뽑아내고 인생을 작파해 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동욱은 아버지의 핏줄을 저주하면서도, 일생을 자신에게 희생한 어머니와 형에게 등을 돌리고, 핏줄을 따라 신태환과 함께하게 된다. 결국 피는 악의 정당성의 또 하나의 기반으로 작용하는데, 혈연중심주의의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드라마는 과장된 연기와 대사, 성경의 댓구를 그대로 읊으면서 어색함의 극치를 달리는 극의 전개는 시청자들의 잦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말까지 죄악과 복수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과장된 극의 전개는 성경의 내러티브와는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레베카(유미애): 거부당한 사랑의 고통.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한테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더 참기 힘든 고통이었어.. 당신과 나..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의 동쪽 땅을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카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이고 추방당한 죄 악의 땅 말이야... 음지에서만 꽃을 피우는 우리 같은 독버섯들이 말끔히 사라져줘야 이세상이 보다 더 살기 좋은 낙원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네 죄를 그만 끝내게 해줄 생각이야!

신태환: 입닥쳐. 네가 내 죄를 끝내준다고? 하하하. 나 신태환이야.

56회에서 레베카로 변신한 유미애 간호사가 차를 과속으로 몰며 신태환과 동반 자살함으로 피의 응징을 하는 장면에서 카인과 아벨의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과장된 대사와 연기를 보이고 있다. 이로서 절대악에 대한 죽음의 복수로 극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드라마의 내러티브적 단순 논리대로 절대악의 페르소나인 신태환의 죽음으로 세상의 죄가 없어지고

낙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암시이다.

리치가 분석한 카인과 아벨의 내러티브 구조를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적용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리치가 보이듯이 악과 선으로 대립되었던 이야기 초반의 관계는 제 2 국면에서 카인의 살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징표를 카인이 아벨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고 결국 카인은 문명의 시조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3국면으로 이야기의 결말이 이루어진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서는 내러티브 1국면의 선악의 대립이 결말까지 지속되고 3국면의 악에 대한 응징과 선의 희생으로 일상의 평온을 찾게 되는 이야기로 대단원은 막을 내린다. 악의 원인이

| | | | | |
|------|------------------|----------|-------|---------------|
| 1 국면 | 카인 문명 | 아벨 광야 | | 하나님 천국 |
| 2 국면 | | 카인 징표 | | 하나님 |
| 3 국면 | 카인 문명의 시조(에녹) | (연결) | | 하나님 하나님 도시 |

<그림 2> 리치의 카인과 아벨 분석¹¹⁾

| | | | | |
|------|--------------------------------|-----------------------------|-------|---------------------------|
| 1 국면 | 신태환 태백 (기업가) | 이기철 탄광 (노동자) | | 신부(하나님) 교회(천국) (성직) |
| 2 국면 | 신태환 서울, 대기업 (자본주의, 혈연주의) | 이동철 마카오, 카지노 (폭력, 뇌물) | | 이기철 선의이상 |
| 3 국면 | 신태환 (응징, 복수) | 이동철 (연결) | | 가족 (일상) |

<그림 3> <에덴의 동쪽> 내러티브 구조¹²⁾

11) Leach 1985, p. 51

12) 직선은 대립관계를 짐선은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자본주의와 혈연주의 같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절대악의 페르소나로 대면되고 응징되는 내러티브 전개를 보이게 된다.

이같이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내러티브 구조를 한국적으로 변형한 <에덴의 동쪽>은 현실세계의 위기와 혼란을 설명하는 기제로 절대적 악의 근원을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의 페르소나에서 찾고 있다.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신태환의 악행을 통해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자본주의적 모순과 혈연주의의 맥락에서 악의 근원을 찾아 현실의 모든 문제를 투사하고 있다. 성경의 신화적 내러티브 구조를 도외시하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피의 복수와 고통, 핏줄의 운명으로 단순화시켜 교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 공감을 이끄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드라마 <카인과 아벨>에 나타난 선과 악의 집단 무의식

성경의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제목에 전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경우는 실제 내용상 성경의 내러티브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고, 이야기의 심층구조와 영상으로 성경적 모티브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차이를 보인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 첫 장면은 황량한 사막에서 두개골에 충을 맞고 힘없이 쓰러지는 아벨의 페르소나 이초인(소지섭 분)의 희생으로 시작된다. 극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장면은 영상제작상 가장 투자와 공이 많이 든 장면이면서 성경적 모티브를 영상적으로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현세와 괴리된 우주의 한 공간인 듯한 황량한 사막에서 순전한 희생물의 몸짓으로 “형!”을 부르며 피투성이로 내달리는 이초인의 모습은 아벨의 신화성을 영상으로 체현한다. 극 중간 중간에 스틸 이미지로 등장하는 희생물 이초인과 그를 안고 있는 두 여인 오영지(한지민 분)와 김서연(채정안 분)의 이미지도 미켈란젤로의 “성모의 피에타”의 영상을 모방하고 있다. 그 이미지 속에 이들을 노려보며 내려다보는 이선우(신현준 분)의 프로파일은 카인의 페르소나이며 현세 인간의 상징이기도 하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은 8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찍은 해외 로케이션과 아름다운 영상 또 대중 스타 소지섭의 군복무 후 첫 드라마 출연으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이 대중적 코드를 십분 발휘한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빌려 쓰고 성경의 모티브를 영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과 때를 같이 하여 방영한 이 드라마도 선악의 절대성을 내러티브의 기본 구조로 하여 현실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기존 드라마의 담보성을 탈피하려고 기획된 것이다.

<카인과 아벨>은 이복 형제간의 배신과 질투를 근간으로 드라마의 갈등을 풀어가고 있다. 굴지의 종합병원 원장은 자신의 아들(선우)이 아니고 입양한 아들(초인)을 후계자로 지목하여 친모자의 질시를 받게 되고 원장이 뇌종양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이에 모자는 이복동생 이초인을 제거하려는 획책을 꾸미게 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복형을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고 살아왔던 초인은 중국 출장 중 살해 시도를 당하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나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다. 기억 상실 중 탈북자 집단에 연루되어 탈북자 오영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

을 살게 된다. 결국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적을 처단하고 진정한 사랑도 찾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은 전형적인 액션 멜로 장르로 내러티브 구조는 선악의 대립과 사랑의 삼각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드라마가 고답적인 내러티브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드라마 제목이 상징하고 있듯이 선과 악의 근원성, 심층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의 기원인 카인이 시작한 인류사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현세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선악의 대립은 극에 보편적으로 차용되고 있는 양식이지만, 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경우 선과 악의 이미지를 새로운 기호로 구성하고 있다.

우선 선으로 상징되는 이초인의 캐릭터는 드라마 초반 아벨의 회생을 이미지화하고 있지만,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선의 이미지를 전개시키고 있다. 선한 미소와 형(사실상 악의 상징)을 무조건적으로 동경하고 따르는 초반 이초인의 선의 이미지는 흔히 현세에서 선을 무력함으로 등치시키는 현실 판단과 맞닿아있다. 드라마에서 기존의 선의 이미지는 회생을 계기로(성경의 아벨처럼 사멸하는 게 아니고) 이를 극복하고 부활하게 되면서, 이후 새로운 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강인함과 영웅주의로 치환된다. 형과 계모의 계약으로 중국 사막에서 충을 맞고 쓰러진 이초인은 탈북자 오강호 일당을 만나 치열한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강인한 전사로 탈바꿈한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초인은 육체적 강인함과 정신적 혼돈으로 악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악을 응징하고 강인한 선을 달성하는 초월적 영웅으로 등장한다. 뛰어난 두뇌와 전략으로 주위를 통제하고 때로는 속이면서 복수를 완성하는데, 끝에는 용서와 화합의 몸짓으로 선의 캐릭터에 방점을 찍으며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의 캐릭터 또한 기존의 악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빌려온 드라마의 제목부터가 악의 절대성을 보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드라마에는 두 종류의 악인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전형적인 악의 역할인 폭력배, 사기 협작꾼이 하나이고 보다 새로운 악의 캐릭터 즉 절대악 카인의 페르소나인 선우의 캐릭터이다. 전형적인 악한은 중국에서 초인에게 충을 쏘고 주위 관계자를 협박하는 폭력 사기배와 또 초인과 영지를 괴롭히는 탈북자최치수이다. 이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탐욕과 이기심으로 악행을 일삼는 전형적인 악의 캐릭터이다. 이에 비해 카인의 페르소나는 몇 가지 점에서 전형적인 악한의 캐릭터와 차이를 보인다.

첫째, 계급적 차원에서의 차이이다. 전형적인 악인들은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이거나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금전과 권력에 대해 강한 동기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카인의 페르소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층에 속하고 금전과 권력이 악행의 직접적 동기가 되지 못한다. 드라마에서 존스홉킨스를 나온 실력 있는 의사로 나오는 선우는 능력과 고급 문화적 취향을 갖춰 미디어에 보이는 일반 악의 전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드라마에서 병원의 이권을 둘러싼 암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 드라마 악인의 역할과 달리 이 드라마의 카인은 물질적 탐욕이 악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악의 동기가 모호하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이 대중의 장르

적 형식에 맞게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따라 초인-서연-선우의 사랑의 삼각관계가 선악 대립의 동기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드라마 전개에서 삼각관계를 악의 동기로 보기에는 서연의 역할이 지나치게 약하고 사랑과 질투의 동기는 모호하게 묘사되고 있다. 악의 동기가 선우의 물욕과 권력욕도 아니고, 삼각관계도 단지 피상적 이유만으로 묘사된다면, 드라마에서 모호하게 보이는 선우의 악행의 원인은 보다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신분석학의 틀을 적용하면 오이디푸스적 욕망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즉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악행의보다 강력한 동인으로 선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선우가 이전의 악의 이미지를 넘는 절대악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것도 바로 생부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뇌수술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선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지나친 애정과 욕망으로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외면 사이에서 갈등하는 무의식적 콤플렉스가 악행의 동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악의 캐릭터의 복잡성이다. 절대적 악의 기호로 구성된 선우의 캐릭터는 친부와 동생에 대한 살해 욕망을 가책 없이 드러내 절대악을 표방하면서도 때로는 전형적 악한 보다 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는 선우가 보이는 연약함은 그의 불치병과 식물인간으로 무력한 아버지 앞에서 조차 애정 선망으로 북어지는 눈시울을 자주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날로 강인해지는 초인의 육체적 힘과 대조적으로 신체와 욕망의 좌절로 약해지는 선우의 캐릭터는 극 후반에 선악의 대립을 맥없이 하기도 한다. 선우는 뇌종양으로 무시로 길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극중 선우가 보이는 악의 이중성은 악의 절대성을 보이려는 기획 의도와 모순된 실패사례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악의 동기가 무의식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했듯 악의 동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귀착되며, 이것이 복합적 악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같이 현재 미디어가 악의 속성에 천착하는 것은 표층적으로는 사회변화에 기인하며 보다 심층적으로는 이에 반응하는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예시한 두 드라마가 소재로 하고 있는 성경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악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기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보다 심층적으로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신화적 내러티브와 집단 무의식으로 해석하면 선악의 이분법과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보다 심층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칼 융은 선과 신의 이미지가 유대교적 토대를 넘어 보편적 신화의 구조를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카인이 재현하고 있는 악과 인류 효시의 상징도 기독교를 넘는 보편적 신화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과 신격을 집단무의식으로 접근하면 이미 선과 악의 이분법의 표상은 교란되고 깨지게 된다. 카인이 대변하고 있는 악의 원천도 선과 자웅동체를 이루며 무의식적 상징을 표현하게 되는데, 신화와 예술에 다양하게 표현되는 캐릭터들이 카인의 인성을 내포하고 있다. 카인은 죄로 출발하여 초월성의 징표를 받게 되는데, 이지점에서 악의 이중성도 선의 이중성과 접합하게 된다. 융이 분석하고 있는 성경의 선의 축인 아벨-아브라함-모세-다윗-에

수도 신화 구조가 보여주듯이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욕망과 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악의 축인 카인-파라오-사울-헤롯도 선의 탄생의 필연적 토대이며 동전의 양면처럼 선 악은 공동의 성격을 공유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드라마 〈에덴의 동쪽〉, 〈카인과 아벨〉은 성경의 모티브를 대중 드라마의 장르 법칙에 따라 제작하다보니 악의 속성과 운명에만 초점을 맞춰 성경의 원뜻을 단순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하고 전형적인 장르적 이야기의 변형 속에 때때로 집단 무의식의 심리를 언뜻 언뜻 드러내고 있다. 〈에덴의 동쪽〉에 카인 역인 신태환이나 〈카인과 아벨〉의 카인의 페르소나 이선우는 선의 대척점에서 악하지만 악하고 이를 배반적인 욕망의 존재로 묘사된다. 이 드라마들이 보이는 악의 캐릭터의 복잡성, 내러티브의 혼란성은 대중적 장르법칙과 수용자에 대한 영합이 부른 실패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심층적으로 선악의 이분법을 넘는 집단 무의식의 욕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칼 융이 지적했듯이 무의식적 욕망의 가장 비근한 부분이 근친상간적 욕망이다. 프로이드와 달리 개인 차원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넘는 집단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으로 접근하면 모성은 절대성으로 귀결되며,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존재했던 성격성과 그에 대한 거부장적 저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하는 두 드라마도 남성적 장르로 남성 주인공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도 모성에 대해 때로 불가해한 장면들을 보이기도 한다. 드라마 전반에 여성성의 역할은 극히 미약한 반면 중국에는 모성의 문제를 들추면서 막을 내리고 있다. 이는 융이 저작 8권에서 논한 스펅크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조역으로 나오는 스펅크스가 사실상 내러티브의 중심이 된다는 융의 말처럼, 두 드라마에 나오는 모성은 스펅크스가 상징하는 공포와 신격의 이미지이며, 내러티브에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결국 문제의 실마리로 암시되고 있다.

〈에덴의 동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적 장르의 하위 캐릭터를 구성하면서도 하나같이 팜므파탈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유미에 간호사는 남성에게 배신당하고 아기를 사산하게 된 원한으로 피의 복수를 하게 되며 그녀의 잔혹한 행동에 추호의 망설임은 없다 또한 동철과 동우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양춘희 여사는 극의 종말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국 모성의 욕망은 가장 치열하고 근원적인 악의 뿌리로 드라마에서 묘사된다.

〈카인과 아벨〉에서도 악의 끝은 어머니로 종결되는데, 그녀의 아들을 향한 모성의 욕망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마지막회 20회에서 부원장인 어머니는 이초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부원장: 내가 잘못했다.

이초인: 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선우 수술해도 죽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부원장: 내가 사형선고 받아도 좋고. 그래도 죽겠지. 그래도 하루라도 살 수 있겠지. 인사라도 하고 보내게. 형 좀 살려줘.

눈물의 범벅이 되어 아들을 향한 모성을 토로하면서 죄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또 드라마의 대단원 단계에 접어드는 17회에서 이선우의 죄상이 밝혀지고 병으로 쓰러져 이초인의 복수극이 마무리 될 때 이초인은 부원장인 의붓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단지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선악의 희비가 근친상간적 욕망에서 발현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드라마에서 모성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악의 근원이 되며 팜프 파탈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보이는 집단 무의식은 자본주의적 상업성과 영상제작의 관습과 융합되어 모호하고 간헐적인 성격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영상적 재현과 수용의 측면에서 무의식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액션 멜로 장르인 이들 드라마가 성경까지 끌어들여 내러티브 전개를 시도한 것은 절대악에 대한 근원주의적 재현을 표방하는 것인데, 실제 선·악의 캐릭터는 한층 모호해지고, 일관성 없는 이야기 전개를 보이게 된다. 이것이 술한 비판과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높은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집단 무의식에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혼돈의 시대로 불리는 현재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세기말의 위기와 염세주의가 물러가고 새 희망의 신세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전 영역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과 금융위기, 환경 위기 등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지면서 집단적 불안감은 다양한 형태의 설명과 비전을 찾게 되는데, 미디어가 하나의 탈출구로 이용되게 된다. 최근 미디어가 성경에 눈을 돌려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의식적 차원에서 그럴듯한 소재와 이야기 방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전략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는 인간 심리의 저변인 무의식에 기인한 발상이라고도 보여 진다.

집단 무의식은 칼 융이 근본주의 신앙이나 프로이드식 개인주의 이 두 차원을 모두 넘어 인간 정신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이다. 혼돈스런 신경증 환자의 꿈에 불현듯 나타난 이미지나 대중매체에 상업적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에도 사회적 인식과 이에 반응하는 심층적 무의식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위기의 시기에는 이것이 보다 응축된 형태로 나타나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행처럼 대중매체에 반영되고 있는 성경의 모티브를 우리사회가 내면화하고 있는 문제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하였다. 성경 텍스트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두 개의 대중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카인과 아벨>을 선정하여 내러티브 구조와 사회심리적 반영 양상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았다. 이 두 드라마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질투심으로 동생을 살해한 카인은 악의 기원으로 인

식되어 왔고,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 악의 근원을 조망하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 나오는 카인의 이야기는 복합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함축하고 있으며, TV 드라마도 캐릭터나 이야기 전개 측면에서 모호하고 혼란스런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카인과 아벨을 쉽게 선악의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교조적인 기독교 강해이나 보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상세하고 인류학적 증거를 대입해 보면 단순한 죄악의 씨앗을 넘는 복합적 내러티브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인류학 계승자인 리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죄의 씨앗이 아닌 인류사 창시의 기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레비스트로스식 이항대립으로 보면 카인은 당시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죄의 세상에서 신의 보호와 선택을 받은 인물로 신학자 중에는 예수의 모델로까지 격상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블록버스터 장르 드라마를 표방한 <에덴과 동쪽>과 <카인과 아벨>은 장르 관습에 근거하여 성경의 심층적 내러티브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 시청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혼란스런 캐릭터 설정과 이야기 전개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와 심층적 구조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아벨의 캐릭터를 일찌감치 따돌린 카인의 캐릭터이다. 두 드라마 모두에서 절대악을 재현하기 위해 성경까지 들고 나온 카인의 캐릭터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악의 동기가 모호하고 때로는 약하고 현실적인 악의 캐릭터는 이후 드라마에서도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공감대를 넓혀갔다.

일반 대중을 위한 TV 드라마에서 기독교 사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반영한 산업적 전략과 새로운 것을 찾는 제작자의 시도가 힘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입된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대중문화의 방식으로 일정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런 시도에서 두 드라마는 지나치게 식상한 내러티브와 관습적 영상 구성으로 그리 성공했다고 평가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면서도 보는 수용자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이후 드라마에도 유사한 테마가 지속되게 했던 이유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인격의 영성을 탐구하였다. 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이기도한 융은 방대한 저술에서 다양한 인류학적 예증과 예술 작품 분석, 자신의 환자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신화와 성경의 모티브를 분석하고 있다. 융에 따르면 성경의 내러티브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는데, 인간 내면의 근원적 프시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 융의 분석심리학을 대입해 볼 때, 두 드라마가 보이는 악의 심리는 신화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의식적 콤플렉스와 맞닿아 있다. 인격의 영성, 곧 프시케에 내재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콤플렉스가 영웅과 데몬(악마)로 치환되어 나타나는데 고대 신화와 경전의 내러티브에서 근대 예술 작품, 현대 대중 매체의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축적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영웅과 데몬의 이야기는 다시 어머니 이마고의 숭배와 억압의 반복적 이율배반으로 변이를 거듭하는데 이는 인류사학적으로 존재했던 신의 여성성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융의 설명이다. 현재 두 드라마가 보이는 모호한 악의 동기와 혼란스런 악의 캐릭

터에 잠재되어 있는 것도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에 기인한다. 프로이드와 같이 칼 융도 무의식적 욕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친상간적 욕망으로 보지만, 이것이 단순한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젠더의 문제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개인주의적 근친상간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적 욕망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축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모성에 대한 근친상간도 인류 창시부터 존재해온 성격과 인격의 프시케에 연루되어 문화적 현상에 재현되는 것이다. 성경을 근거로 대중매체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선악의 가치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집단 심리의 문제를 보다 근원주의적 차원에서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조신권(2008). 『성경의 문학적 탐구』. 서울: 아가페문화사
- 문화선교연구원(2005).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서울: 예영
- 박진규(2009).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309~329.
- 윤선희(2007). 기독교 방송의 이념성향과 수용자 시청양식에 대한 문화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5~32.
- Beidelman, T.(1974). *Robertson Smith and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asement, A.(2001). *Carl Jung*. New York: Sage
- Fiske, J.(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Frazer, J.(1918).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Studies in Comparative religion*. London: Macmillan.
- Goffman, E.(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J: Prentice Hall.
- Gusdorf, G.(1983). *Mythe & Metaphysique*. Paris: Pantheon.
- Jhonson, R.(1983). *We: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Romantic Love*. New York: Harpercolins.
- Jung, C.(1948). *Analysis of Unconsciousness*. Zurich: Zurich Press.
- Jung, C.(1985/ 1960). *Jung Series V. 8*. New York: Boulingen.
- Lacan, J.(1977). *Ecrits: selection*. Sheridan (trans.) New York: Norton.
- Lacan, J.(1981).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Sheridan (trans.). New York: Norton
- Lacan, J.(1982). *Feminine Sexuality*. New York: MacMillan.
- Leach, E.(1985). *Structuralist Interpretations of Biblical My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ach, E.(1976). *Cultur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ach, E.(1969). *Genesis as Myth and other Essays*. London: Cape.
- Levi-Strauss(1968). *Structural Anthropology*. London: Allen Lane.
- Malinowski, B.(1948) *Myth in Primitive Psychology*. Londo: Pree press.

Rolins, W.(1983). *Jung and the Bible*. Atlanta: John Knox Press.

Schniedewind, W.(2004) *How the Bible became a boo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right, W.(1975). *Sixguns and Society: A structural study of the Wester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최초 투고일 2009년 12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0년 1월 28일

Religious Themes and Mythical Narratives of Korean Television Dramas

Sunny Yoon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Popular culture is currently elaborating mythical narratives more than ever in the 21st century despite the fact that technology and capitalism has been advanced. Ancient myths and the Bible became main sources providing popular culture with stories recently. Korean media are also frequently carrying religious themes, particularly from the Bible. Korean network television dramas *East of Eden* and *Cain and Abel* are the two cases that this research looks into. This study will examine social aspects of biblical theme in Korean popular culture, particularly highly rated television dramas. First, I conduct a textual analysis of Korean drama narratives referring to theories of Levi Strauss and Edmund Leach. I attempt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narrative structure of Genesis and its adoption to Korean drama. Second, this research is getting into the social aspect of creating myths in Korean popular culture by applying Carl Jung's theories.

Key words : Religion and Culture, Psychoanalysis, Cultural Studies, Television Drama